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말씀>

할렐루야! 금요일 밤입니다.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올해 지금까지 전한 말씀들 중에서 ‘생각’에 대한 말씀은 <휴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휴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주일말씀, 수요일말씀을 통해서 ‘생각’에 대한 말씀을 깊이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교역자 연수> 중에 극기봉까지 오르면서 보고 깨달으라고 보여 주었던 잠언들 중에서 ‘생각’에 대한 잠언들을 뽑아서 전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2. <생각>이 살아야 산다.
3. 성자는 도울 때 할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4. 성자는 도울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뇌에 생각나게 하며 도우신다.
6. ‘육의 눈’으로 못 보면 ‘생각의 눈’으로 보아라.
7. ‘생각의 눈’이다.
생각하는 때는 ‘생각의 눈’으로 생각하는 자를 보는 때다.
8. ‘생각의 눈’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할 때, 그 순간 자기 육이 삼위를 보고 있는 것이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해라. 생각하는 자를 쳐다보는 자로 보고 대하시고, 그때 하실 말씀도 하신다.
10. 사람의 육은 ‘눈’으로 쳐다봐야 보이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생각의 눈’으로 쳐다봐야 보는 것으로 생각하신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는 시간’은 ‘쳐다보는 시간’이다. 고로 그때 하실 말씀을 하신다.
12. 성자를 믿어도 평소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과 행실’이 흔들린다.
13. 삼위일체 전능자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니 화를 당한다.
14. 눈으로 쳐다보면 상대가 알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생각하면 쳐다본 것으로 알고 대하신다.
15.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생각’으로 느껴 보는 것이다.

16.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생각’으로 느껴 보는 것이다.

17. 사람의 마음도 ‘생각’으로 느껴 보는 것이다.

<잠시 쉬었다가>

18. 뇌는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굳어진다.

19. 자기 ‘육’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에 따라 ‘혼’도 ‘영’도 변화된다.

20. 누구든지 <생각>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21.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별’과 ‘나이’ 상관없이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큰일, 혹은 작은 일을 하게 된다.

22. 자기 생각의 차원이 낮아도 ‘누구의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23.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 <성자의 생각>으로 사는 자, <타인의 생각>으로 사는 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24.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생각이 온전한 자와 하나 되어 행하면, 홀연히 변화된다.

25. <성자 생각>보다 <자기 생각>으로 하루를 거의 살아간다.

26. 성자와 함께 최고의 차원으로 <생각>을 구상하고 실천해라.
27. 보통으로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다.
깊이, 차원 높이 생각해야 <성자 생각>이다.
28. 딴것을 중심하고 생각하며 사는 자는 거기에 빠져 편지 연락도 잘 안 한다. 고로 즉시 알 수 있다.
29. 육적인 자는 생각하는 지능이 영적인 자보다 못하다.
30.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즉시 전해 줘도 지능이 낮은 자는 그 가치를 모른다.

<잠시 쉬었다가>

31. 분별하기 전에 먼저 좋아해 버리면, 그것이 나빠도 좋게 인식되어 뇌가 좋은 것으로 결정하여 좋게만 보고 산다.
32. 생각을 안 하고 보면, 보아도 무의식 단계에서 보기에 모르고 기억도 안 난다.
33. 많이 봐도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 원인은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34.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화를 당한다.
35. 정신을 안 차리고 행하면 사고 난다.

36. 글을 읽거나 말을 들을 때 탄생각하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37. 음식도 탄생각을 하고 먹으면, 맛을 모른다.

<생각>이 ‘눈’ 이다. ‘생명’ 이다.

38. 미인도 별로라고 인식하고 보면, 별로다.

<생각>이 ‘눈’ 이다. <인식>이 ‘결정’ 이다.

39. <생각>이 ‘눈’ 이다. ‘귀’ 다. 생각대로 보이고 들린다.

먼저 인식해 버렸기 때문이다.

40. 생각하는 대로 뇌의 세포는 ‘결정의 형체’ 를 이룬다.

41. 있다고 인식하고 찾으니 <꿈>에도 보이고, <생시>에도 찾으니 있었다. ‘생각의 눈, 인식의 눈’ 이다.

42. 아예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있는데도 안 보였다. ‘생각의 눈, 인식의 눈’ 이다.

43. <뇌>가 ‘내시경 촬영기’ 다.

<잠시 쉬었다가>

44. <생각>이 ‘보화’ 다.

<자기 뇌>가 ‘육계와 영계의 레이더망’ 이다.

45. 집중하여 생각할수록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들이 영감과 직감으로

강하게 느껴져 온다.

46. 성자에게 간구하고 혼의 영계인 <꿈>에서 보면,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의 실상을 보여 준다.
47. <자기 혼과 잘 통할 줄 아는 자>는 혼을 보내어 은밀한 것도 탐지한다. 혼체를 목적지에 보내어 물어보고 대화하며 중계한다.
48. <영의 능력이 있어 자기 혼을 부릴 줄 아는 자>는 혼을 보내어 현장을 생중계하며 물어서 안다.
49. <혼을 보내어 목적인 것을 행하는 자>는 육과 혼의 은밀한 것도 알게 된다.
50. 혼을 보내어 ‘땅속과 물속’도 알아보고, ‘사람의 행위’도 알아보고, ‘지구 세상과 영의 세계의 의문’도 파헤친다.
51. 자기 육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듯이, 혼의 능력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52. 앞날도, 멀리 있는 것도 생각을 깊이 하면 <자기 혼>이 <생각>과 같이 가서 보고 오기에 알 수 있다.
53. 꿈에 보이는 자기 모습이 자기 혼체다.
54. <영>은 ‘혼체’를 쓰고 행하고, <혼체>는 ‘마음·정신·생각’을 쓰고 행하고, <마음·정신·생각>은 ‘육신’을 통해 행한다.

55.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화가 닥치고, 복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모른다.
56. <육신>은 행해야 행한 것이 되지만, <생각>은 생각한 것이 행한 것이다.
57. 육체가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는 것에 따라 뇌에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폭발한다.
58. 생각한 것을 실제로 있게 하려면, 육으로 행하여 만들어야 한다.
59. 생각을 실천해야 창조된다.

<잠시 쉬었다가>

60. 바람은 <속력>에 따라 ‘위력’이 좌우되듯,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빠르기>와 <결심의 강도>에 따라서 ‘위력’이 좌우된다.
61. <생각의 빠르기>와 <생각의 강도>에 따라 ‘육과 혼의 능력’이 좌우된다.
62. <강한 생각, 강한 실천>은 ‘위력’을 발휘하고 ‘표적’이 일어나게 한다.
63. <생각의 차원>을 최고로 높이고 행하면, 숨겨진 각종 보물도 찾는다.
64. 생각과 정신을 일도(一到) 하면, 최고 차원에서 보고 행한다.

65. 성자와 같이 생각하며 생각하면, 하늘같이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한다.

<잠시 쉬었다가>

66. 하는 일에 생각을 집중해라. 딴생각하면 실수하고 사고 난다.

67. <생각>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나 평소 기뻐하던 것을 생각하면, 더 집중된다.

68. <생각>은 목적을 두고 집중할 때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된다.

69. <생각>을 집중하고 행할 때 천재가 된다.

70. 생각할 때 집중해서 생각해 버려야 많이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71. 더 좋게 하려고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거듭해야 ‘더 좋은 생각의 보화’를 찾게 된다.

72. 할수록 더 좋게 변화된다.

73. 반복해서 생각하면 훨씬 이상적으로 생각된다.

74. 생각을 반복할수록 ‘각종 생각의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

75. 보통의 뇌라도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더 잘 만들려고 수백 번씩 생각하면, 거기의 천재가 된다.

76. <노력의 천재>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행하여서 된다.

77. 많이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고르기다.

78. 많이 만나 보고, 그중에서 고르고 택하기다.

79. 골라도 좋은 데서 골라야 좋은 것을 얻게 된다.

80. 많이 보고 고르기다.

81. 많이 실패하고 많이 얻었다.

82. <생각>이 ‘각종 무기’ 다.

83. <생각>이 ‘경호원’ 이다.

84. <생각>이 ‘힘’ 이다. ‘전파’ 다.
빛보다 4백억만 배 빠르다. 썩먹어라.

85.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86.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자꾸 생각되어지고 행하게 된다.

<잠시 쉬었다가>

87. 잘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것도 생각하며 행해야 손해를 덜 보게 된다.

88. 생각을 잘못하고 행하면, 자기가 그 고통을 다 받는다.
89. 생각을 잘못하고 행하다가 화도 죽음도 당한다.
90. 자기 ‘생각과 행위’로 자기 ‘행복과 고생’을 좌우시킨다.
91. 하루를 살아도 <생각>을 잘못하고 살거나 <생각>이 태만하면 시간을 허송하여 남는 것 없이 끝난다.
92.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순간’에 일어난다.
순간에는 순간으로 번개처럼 행해라.
93. 자기 생각을 결정하기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가게 된다.

<마무리>

94. 우물쭈물 망설이면 되는 것이 없다.
95.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다.
96. <생각>이 약하면, 사탄과 인사탄이 계속 유혹한다.
97. 무지로 굳은 뇌는 <생각>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을 집중해서 행하면, 얼음 녹아 흘러가듯 한다.
98.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의 생각이 파장이 걸려서 전해진다.
99. 성자를 계속 생각하면, 성자의 생각과 일체 되어 그 생각이 확실히

느껴져 온다.

100. <생각>으로 뇌에 입력되고, <생각>으로 기억된다.

101. 사랑한다고 <몸>을 껴안고 있어도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산 시체’ 다.

102. 생각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모른다.

103. 성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성자가 옆에 와서 말씀하셔도 모른다.

104. 성자를 부르고 생각해야 ‘생각의 문’ 이 열린다. 고로 성자가 오시면 즉시 안다. 고로 성자는 성자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오신다.

105. 생각이 흐려지면 지체는 멀쩡해도 점점 식물인간이 된다.

106. 생각을 차원 높게 또렷하게 해야 잘된다.

107. 생각하지 않으면 물건도, 생명도, 너도, 애인도 잃어버린다.

108. 생각하는 대로 너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가 좌우된다.

109. 작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생각을 매일 키워라.

성자가 ‘자기’에게 해 주신 말씀 잘 들었지요?

(설교자는 손으로 자기를 확실히 가리킨다)

‘여러분 자신’의 말씀이니, 자기 것으로 삼고 희망을 가지고 생각

하고 행하며 살기 바랍니다.

〈성자의 사랑〉과, 〈생각의 축복〉과, 〈행실의 축복〉과, 〈휴거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